

사회

‘천안함’ 광주·전남 생존자 가족들

“면회 제한·합구령…우리도 답답”

“승선 안했는데 생존자 명단 포함” 의혹도

천안함에서 근무중이던 보성 출신 김수철(24) 일병은 지난 27일 밤 9시 30분께 취침을 준비하던 중 ‘랑’ 하는 굉음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김 일병은 폭발음과 함께 천안함의 모든 불이 꺼지자 급히 갑판 위로 뛰어올랐다. 밤바다는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천안함으로 접근하던 해양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김 일병의 가족들은 “수철이가 구조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면서도 “실종자 가족들도 있는데…”라며 말을 아꼈다.

“천안함” 침몰 닷새째인 30일 광주·전남 출신의 생존 승조원 6명과 가족들은 놀란 가슴을 솥내리며 실종자들의 생환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다. 생존자 가족들은 대부분 “실종자들에 대한 생존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심경을 표현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해군이 생존자 58명 가운데 52명을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옮겨 사실상 격리시키고, 수차례에 걸쳐 가족과의 면회까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광주·전남 출신의 구조 승조원 A씨의 어머니는 “27일 오전 8시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오후 3시가 돼서야 면회를 했다”며 “몸 상태가 좋아보였는데도 병원에서 옮겨야 한다는 말에 30분도 채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생존 승조원 B씨의 아버지는 “27일 새벽에 연락으로 올라갔는데, 아들을 만나지 못한 채 생존명단만 확인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 사이에선 군 당국이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합구령’을 내렸다는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또 일부 생존 승조원들은 소속 부대가 ‘보안’을 강조하는 틈을 타 은밀히 2합대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실종자 가족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는 52명의 생존자들이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은 자세한 증상과 치료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외상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 등은 대다수 생존자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한 병원에 사실상 격리된 것을 놓고 정 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곡성 출신 정종욱(33) 중사의 어머니 이 덕(59)씨는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도록 군 당국은 구조작업은 물론,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일체 말을 하지않고 있다”며 “침몰 당시 구조된 사람들에게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라도 전해 듣고 싶는데 만날 방법조차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일각에선 현재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C(21) 하사가 “사고 당시 함정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C하사의 지인은 30일 C하사가 지난 23일 ‘천안함’에서 하선, 26일 밤 9시30분 사고 당시 함정에 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하사는 국군수



애타는 기다림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지 닷새째인 30일 오후 해군 2함대사령부에 마련된 임시숙소에서 구조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한 실종자 가족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잠겨있다. /연협뉴스

도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며칠 전 부모가 문병까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정책홍보실 관계자는 “천안함에 탄 병력이 함

정에서 내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평택=이종행기자 golee@ /백령도=김형호기자 khh@

광양 동호안 독 붕괴 매립장 관리부실 탓

순천지청, 운영사 대표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0일 지난 해 8월 발생한 광양시 태인동 동호안 독 붕괴사고 책임을 물어 폐기물매립장 운영사인 I사 대표이사 오모(49)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폐기물매립장 지반이 연약지반인 점을 매립장 장축시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후 매립장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불러온 혐의다.

순천지청은 “I사가 매립장 설계나

‘LPG 소송’ 원고인단 모집

참여연대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격담합으로 판정된 SK에너지, SK가스를 상대로 ‘LPG 가격담합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가할 원고인단을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담합 기간인 2003~2008년 SK에너지와 SK가스 충전소를 이용한 시민 중 사용내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 비용은 1만원이다. /연협뉴스

광주지검 수사 확대

검찰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과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 <본보 3월 30일자 6면>한 데 이어 교구 납품업체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교육비리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광주지검과 교구업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교구납품 업체인 H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견적서와 거래

주인 잡은 소

보성 80대 농부 20년 기르던 소에 차여 숨져
쟁기질 훈련중 흥분…몰고 들어받고 차고…

80대 농부가 20년간 자식처럼 애지중지 기르던 소에게 차여 숨졌다. 이 소는 장씨가 20년 동안 키우던 한우 암소로, 장씨는 이날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겨울 동안 외양간에 묶여있던 소에게 미리 쟁기질 훈련을 시키기 위해 끌고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마을 주민은 “장 할아버지가 평소 소를 자식처럼 지극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다”고 안타까워 했다. 경찰은 소가 갑자기 흥분해 주인 장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당비대납 기부행위 혐의
화순군수 선거참모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30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대납과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완준 화순군수의 선거 참모 오모(6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모 은행에서 지역 선거구민을 대신해 당비 1만2천원을 민주당 전남도당에 송금하는 등 29명의 당비 34만8천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군수 지지율 1위’ 홍보
비서실장 등 2명 벌금형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30일 현역 군수가 1위를 차지한 지지도 조사결과가 실린 신문을 복사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장 김모(62)씨와 강진군수 비서실장 손모(50)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과 읍·면 조직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교구 납품업체 추가 압수수색

광주지검 수사 확대

검찰이 광주·전남 시·도교육청과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 <본보 3월 30일자 6면>한 데 이어 교구 납품업체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교육비리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0일 광주지검과 교구업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납품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지역 교구납품 업체인 H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견적서와 거래

서류 등을 토대로 해당 업체가 지역 내 일선학교에 교구를 납품하는 과정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일선 학교와 납품 계약 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창호제작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한 브로커가 교구를 납품하면서 납품비 일부를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일선 학교 3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8075) 김장두

사람의 마음을 가늠하는 것은...
기술수업, 심리학, 뇌과학, 6월 10일

농심식품의 지원으로...
심리학, 뇌과학, 6월 10일

침술심리학...
심리학, 뇌과학, 6월 10일

어디든 성공한 대가...
심리학, 뇌과학, 6월 10일

풍암저수지 고교생 번사체

30일 오후 3시에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에서 광주 모 고교 3학년 Y(18)군이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Y군은 지난 1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가족들에 의해 가출신고가 된 상태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차선시비 택시기사들 ‘먹살잡이’

○차선 변경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택시기사들이 우연히 다시 만나 먹살잡이를 하다가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청은 지난 29일 밤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전대후문 택시승강장에서 팔다름 끝에 몸싸움까지 한 김모(48)씨와 남모(52)씨 등 택시 기사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날 택시승강장에서 대기중이던 김씨는 바로 앞에 정차된 택시가 이를 전 다툼을 벌였던 남씨의 차량인 것을 알고 쫓아가 시비를 벌이다 서로 먹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것.

○경찰에서 김씨는 “이틀 전 운행 중 갑자기 끼어든 남씨의 차량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며 “그때 충분히 사과를 받지 못해 다투게 됐다”고 설명.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7월 9일 공무원 경찰직

합격 전문학원 **서울고시학원** 합격은 쉽고 할라집니다!

→ 2009년 입사, 전일 4개월(가계) 보충학원 100명, 보충비 1000만 원, 70% 합격률
→ 2009년 입사, 교육행정직 14명, 도청 14명 합격, 60% 합격률
→ 2009년 입사, 전일 보충학원 14명, 보충비 1400만 원, 60% 합격률

개강 ▶ 매월 1회

행정직/교육행정직/사무직
검정직/소방직 전문

4월 1회
국어: 송태웅 선생님

경찰직

서울고시학원 | 서울경찰전문학원 | 251-7959

의사/약사가 되는길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PEET/ MEET/ DEET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합디패스 의학원!!! 합디패스 약학원!!!

합디패스
전문가

서울고시학원

514-4560
kgsol.co.kr

MDP Pass

합디패스
합디패스
합디패스

합디패스
합디패스
합디패스